

■ 반쪽 서평 ■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사회의 재창조』
조너선 섉스 지음, 서대경 역, 말글빛냄, 2009, 520쪽.
The Home We Build Together,
Jonathan Sacks, Continuum, 400pp.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라는 이 책의 첫 구절이 의미심장하다. 한국사회는 지금도 다문화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선언하다니. 저자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통합이 아닌 분리로 귀결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분리에 관한 온갖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통합에 관해서는 어떠한 동기부여도 하지 않음으로써 집단들의 개별성을 정당화했다.” 즉, 다문화주의로 인한 결과는 “통합이 아닌 배제의 장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 아래, 수명을 다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다문화주의가 적용된 국가들에서 더 배타적이고 편협한 모습이 나타난 사실에 주목한 조너선 섉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도덕 기준이 상실되고, 사회로부터 공동체로의 내적 도피 등,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빚어졌는지를 알아본다. 또 사회건설 이론의 기초 원리를 파악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적 민족주의와 공동의 정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나온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론이, 요크의 아프리카인 대주교 존 센타무, 인종평등위원회의 전 의장이며 가이아나에서 교육을 받은 트리버 필립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유대교 최고지도자 등 다문화주의의 수혜자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저자 조너선 섉스(Jonathan Sacks)의 다른 책, 『차이의 존중』(임재서 역, 말글빛냄, 2007)도 번역되어 있다.